현대석유화학 인수 백병전 탈바꿈

LG화학 · SK 뒤늦게 참여 … 석유화학 주도권 확보싸움 변질

LG화학과 SK가 현대석유화학 인수전에 뛰어들어 2002년 2월초 현대석유화학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호남석유화학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LG화학은 4월30일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이 현대석유화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면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LG화학 계열사인 LG석유화학은 에틸렌 생산능력이 75만톤으로 LG화학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면 에틸렌 100만톤 생산설비를 추가 확보해 총 생산능력이 175만-180만톤에 달하게 된다.

LG화학이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고려하는 또 다른 배경은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에서 최종제품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갖출 수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002년 들어 석유화학 경기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LG화학은 2001년 하반기에 증권시장에서 인수설이 나돌았을 때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한 바 있다.

SK도 5월1일 SK그룹 차원에서 현대석유화학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건이 맞는다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SK구조조정본부 안에 현대석유화학 인수문제를 다루는 팀이 구성돼 있는데 매각조건 등의 윤곽이 잡히면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SK가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면 전체를 일괄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나프타분해시설 등 일부 공장만을 매입할 것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현재 에틸렌 73만톤 크래커를 가동하고 있으며 SK, SKC, SK케미칼 등의 화학계열사를 통해 기초유분에서 생명공학 등 다양한 화학분야를 영위하고 있다.

SK가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면 SK는 에틸렌 178만톤, 프로필렌 87만5000톤, 부타디엔 24만5000톤, 벤젠 63만3000톤, HDPE 41만톤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기업으로 부상하게 된다.

SK는 2001년 7월 SK에버텍(SK케미칼에 흡수 · 합병)의 Styrene 공장을 한국BASF에 1억3000만달러를 받고 매각했으며, 2001년 말까지 SK의 합성수지 부문을 떼어내 대림산업, 폴리미래 등과 통합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 바 있다.

LG화학과 SK가 뒤늦게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겠다고 뛰어든 배경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정말 인수할 의지가 있는지, 호남의 인수의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인지 확실치 않은 상태이다.

현대석유화학의 존속가치는 1조6000억-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호남석유화학은 LG화학과 SK가 현대석유화학 인수에 가세한다 하더라도 부채탕감 등 호남이 요구해온 인수조건을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호남석유화학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면 호남석유화학의 에틸렌 생산능력이 170만톤을 넘어 국내 석유화학산업 주도권을 보유하게 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02>